



제6차
경기문화포럼

다문화 사회의 문화예술



제6차 경기문화포럼
다문화 사회의 문화예술

일시 : 2009년 9월 22일(화) 15:00~18:00

장소 :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

주최 : 경기문화재단

진행 순서

시간	구분	진행 내용
14:30~15:00	등록	-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5:00~15:20	개회식	- 진행 : 문화정책팀 - 인사말 : 대표이사 또는 사무처장
15:20~16:00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 양한순(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 발제 - 다문화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 최윤정(문화부 문화예술교육팀) - 다문화적 환경과 문화예술 : 최혜자(문화정책연구소 전문위원)
16:00~16:20	휴식	Coffee Break
16:20~17:00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토론 - 심보선(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믹스라이스(작가 그룹/양철모·조지은) - 양혜란(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미누 목탄(다문화밴드 '스탑크랙다운' 보컬)
17:00~17:40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플로어 토론
17:40~18:00	폐회	- 재단 다문화사업 소개 : 문예지원팀

목 차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7
최윤정(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팀)

다문화적 환경과 문화예술 15
최혜자(문화정책연구소 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최윤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팀)

I. 추진배경

□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 향후 지속적 증가 및 다양화 전망

- 전체 : 총인구(4,959만명)의 2.2%으로 2008년(891,341명)보다 24.2% 증가
※ (06년)536,627명 → (07년)722,686명(34.7%) → (08년)891,341명(31.4%)
- 체류유형별 : 과거, 단순 기능분야 종사자 → 결혼, 유학, 전문인력 등 다양화
 - 90일 이상 국내거주자(925,470명) 중, 외국인노동자 575,657(52%), 결혼이민자 125,673(11.4%), 유학생 77,322(7%), 재외동포 43,703(4%) 順
 - 외국인주민 자녀 107,689(9.7%) 중, 만6세 이하 64,040명, 만7~12세 이하 28,922명으로 외국인주민 자녀의 86.3%를 차지 ('09.8. 행안부,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 국적별 : 중국 624,994명(조선족 포함)으로 56.5%를 차지
 - 동남아 21.2%(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미국 5.4%, 남부아 3.9%(네팔 등), 일본 2.4%, 대만·몽골 2.1% 順 ('09.8. 행안부,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 지역별 : 서울 30.3%, 경기 29.3%, 인천 5.6% 등 수도권에 집중 거주 (65.2%)

□ 2006년 ‘외국인정책위원회’ 출범,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정책 본격추진

- 개별부처 또는 관계부처 협의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이주민 관련정책 통합
 - ※ ‘90년대 외국인노동자 → 2000년대 이후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문제로 이슈확대 계기
- 출입국·국적·이민정책과 연계, **법무부 총괄**(‘07.5.1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설치)
 - ‘06.5.26,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발족, **기본정책방향 및 범정부적 종합 추진체계** 마련(현재 14개 부처로 구성)
 - ‘07.5.1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08.12.17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확정
- **주요부처별 소관정책 개요**

부 처	정책영역	정책대상	정책초점
법무부	출입국·국적·이민	입국 외국인 전체, 일반국민	외국인정책 총괄 이주민 사회통합, 체류질서
보건복지가족부	가족복지, 사회복지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다문화가족의 복지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예술·관광	이주민, 일반국민	다문화에 대한 인식제고 이주민 문화·언어적 적응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제도권교육, 인적자원개발	이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 학습능력 향상 환경 조성
노동부	고용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사회적 적응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이주민	이주민 지역정착지원
여성부	성평등, 여성인권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 이주여성의 사회적 적응

II. 문화부 다문화정책 현황

□ 정책비전 및 목표

- 정책비전 :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창조적 문화국가 실현
- 정책목표 : 다문화사회 문화적 교류 및 소통 강화
- 역할·기능 :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
 - ① 이주민의 언어·문화적 적응지원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통합
 - ② 이주민과 내국인간의 문화적 이해증진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
 - ③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문화권 보장

□ 주요 추진경과

- '05.3~9, 외국인근로자 문화적지원 과제탐승팀 운영(18개사업 발굴·추진)
- '06.5~10,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 TF 운영,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연구

□ 주요 추진실적

-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어·한국문화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교재 개발, 한국어강사 양성, 한국어 교육방송 △문화가이드북 발간·보급 △문화·예술·관광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
- 내국인과 이주민간 문화적 교류와 이해증진을 위해, 이주민과 내국인이 함께하는 다문화축제, 지역생활문화축제, 다문화 청년캠프 등 개최지원
- 다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등

Ⅲ. 2009년도 추진현황

1.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

- ◇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단일민족주의, 순혈주의 영향으로 이주민을 사회구성원 일원으로 수용하는데 소극적
- ◇ 다문화·다인종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배타적 정서, 차별적 인식 개선 필요
- * 한국사회에서 이주민(가족) 차별에 대한 인식은 ‘조금 심하다’ 53.3%, ‘심하다’ 19.2%, ‘매우심하다’ 6.9%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80%가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08.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주민차별정도 인식조사 결과’)
- * ‘유엔 인종차별 철폐협약 위원회’는 외국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금지, 단일민족 국가의 인종적 우월성 극복 등을 권고(’07.8.17)

□ ‘다문화 수용성과 포용성’ 증진 홍보

- 다문화사회 ‘포용과 화합’ 주제 공익광고
 - ‘다문화사회는 사랑도 더 많아지는 사회입니다’ 메시지 홍보
 - 이주민에 대한 편견 극복과 관용,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식 확산
- 다문화사회 인식 및 공감 분위기 확산
 - 다문화 주제 포럼·세미나 개최, 다문화전문가 활용 언론기고
 - 아리랑TV를 다문화 전문채널로 활용, 다문화 관련뉴스, 전문가 대담 프로그램 방영 등
- 이주민의 성공모델을 통한 긍정이미지 조명·부각
 - 한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사회에 기여하는 이주민 성공모델 기획특집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
 -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문화예술 전문가 등 분야별 이주생활 성공 스토리 발굴

□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제고

○ 다문화 국악 뮤지컬 'Love in Asia' 전국 순회공연

- 필리핀, 베트남, 연변 등에서 시집은 결혼이주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의 애환을 다룬 최초 국악 뮤지컬
- 국립극장(2.21~22)을 시작으로 11개 시·도 무료 순회공연
- '재미와 감동'을 통해 다문화 인식제고 및 내국인과 이주민의 화합 도모

□ 교육·문화기관의 다문화 교육역량 지원

○ 다문화 이해 연수 및 매개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09.3~11)

- 유·초·중등교사, 문화시설·기관 실무자 등 대상 다문화이해 연수통해 교육·문화현장 파급 확산
-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 대상 한국어·문화교육, 교수법 지도 등 통해 다문화 매개인력 양성, '방과후 학교' 강사 등 활용

○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이해심화

- 어린이·청소년 대상 '외국문화여행', '도서전시회', '다문화 체험 행사' 등

2. 이주민의 문화적 적응지원 및 내국인과의 교류강화

◇ 대다수 이주민은 언어·문화차이로 안정적 정착에 애로

- 특히,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간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갈등, 자녀의 교육문제 등 발생, 장기적으로 사회통합 장애요인으로 작용

◇ 한국어·문화이해 교육 등을 통해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민과의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상호 이해 증진 도모

* 이주민들이 겪는 문화적 애로 :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음(43.4%), 여가시간 부족(20.6%), 한국의 생활관습 적응의 어려움(19.6%)('08.6, 이주민 문화향수 실태조사)

* 이주민 교육 경험 : 한국어(26.5%), 한국문화(9.1%)('08.6, 이주민 문화향수 실태조사)

□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 연계교육**

- 지방문화원 - 국어문화원, 국어교육기관 협력 운영(총 20개소)
- 한국어 + 생활문화 + 문화체험 교육 통해 효과 제고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서비스 전달체계간 유기적 협력, 운영 내실화

□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다문화가정 맞춤형 한국어교재 개발·보급**
- **한국어강사 전문성 제고**
 - 한국어 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표준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
- **방송매체 활용, 한국어 교육의 접근성 강화**
 - EBS 교육방송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초급)' 방송('08.11~'09.4)
 - ※ 매주 월~수, 오전 6~6:30(지상파), 오후 4:30~5시(위성채널 EBS 플러스 2)
 - ※ 원어민과 한국인 공동진행 / 중국어(월), 베트남어(화), 타갈로그어(수)
 - 실생활언어 중심의 활용사례 강화, 중급과정으로 확대 방송('09.5~)

□ **이주민과 내국인이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 단발성 행사 지양, 이주민의 문화적 적응과 내국인의 인식변화 과정이 담기고, 장기적·지속적 효과가 가능한 문화 프로그램 중점 발굴
 - 문화예술단체, 이주민 지원단체(특화 프로그램 개발·시행) - 연구기관·전문가(전문 컨설팅·평가) 연계 협력체제 구축
-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간 문화적 이해증진 프로그램 지원**
 - 대학생 다문화 서포터즈('09.9월~12)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이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각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 등 통해 지역에 적합한 교육 개발·지원
 - * 예술표현 캠프, 연극치료 프로그램, 전통국악교실 등
- **'방과후 학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09.3~'10.2)**
 - 지정학교와 전문단체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미디어교육, 지구촌 민속박물관 견학 등

3.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개선

- ◇ 이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비해 시간부족, 경제적 부담 등 이유로 문화향유·여가생활 기회가 적은 것으로 조사
-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의 경우 정책적 배려가 없으면 문화환경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문화소의 심화 가능성
- * 이주민의 66.2%가 시간부족(39.6%), 경제적 부담(28.8%), 언어문제(10.3%) 등으로 모국에 있을 때보다 문화·여가생활을 적게 누리는 것으로 나타남
(’08.6,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다문화 공간 개설·운영 지원

- 이주민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 설립·지원
 - 기존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설립, 다양한 언어권 자료 수집·제공 및 이주민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 ※ ’08년 1개소(안산), ’09년 2개소(천안, 김해) 설립 지원
-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선·확대
 - 공공도서관 내에 ‘다문화 전용 코너’ 설치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 다언어 동화구연 동영상 제작, 외국도서 등 다언어 자료 구입 확대

□ 다언어 생활문화 정보제공 활성화

- 다문화 포털(<http://multiculture.dibrary.net>) 서비스 구축·운영(’09.5~)
 - 다문화인들의 소통과 지식격차 해소를 위해 다국어(7개언어) 서비스
 - 다문화 정보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카페, 블로그)운영을 통한 소통 강화
 - ※ 7개어 :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 관계부처 협력 이주민 ‘생활문화가이드 북(가칭)’ 제작·배포
 - 외국인노동자 외에 결혼이주여성 증가 등 환경변화 반영 및 문화생활 정보 추가 등 소개
 - 국적별 이주민 수를 고려하여 언어권별 단계적 제작·배포

□ 이주민 여가·문화 향유기회 확대

○ 이주민을 위한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 '주한외국인 국악문화학교' '아시아, 우리는 하나 - 국악공연', '찾아가는 국악원' 등(국립국악원)
- 생활문화 전시·교육 프로그램(국립박물관), 민속문화·전통공연 체험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민속박물관 나들이(국립민속박물관)

○ 이주민 여가 프로그램

- 취약계층 이주민 대상 '복지관광', 다문화가정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다문화적 환경과 문화예술

최혜자 (문화정책연구소 전문위원)

1. 들어가며

오늘 세미나의 취지에서도 밝혔듯, 최근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으며, 관련 문화예술전문가들도 속속 배출되고 있다. 전문가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대개 2005년 참여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정책'이 그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에 다문화라는 개념은 생소한 개념이었으며, 그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어느 부분을 비추어야 할지 모호한 상태였다. 실제 각 나라마다 다문화의 포커스는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우리사회에 등장한 다문화 관련 논의는 이주노동자의 생존 문제, 폭력 및 임금 체불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인권 차원으로부터 삶의 문제로, 농촌에 정착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의 애환을 다문화의 문제로 불거지면서 관련 정책 전면에 등장했다. 이러한 출발은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 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을 '주민'의 위치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전환점이 되었다. 물론,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사회의 허위와 맹목을 뒤집어보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출발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다. 다문화사회를 단지 이주민의 문제로 보는, 그리하여 마침내 다문화정책의 핵심에 법무부가 자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필자는 이러한 정책 집행 편제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문화적 관점으로 제기하는 수준의 발제를 하고자 한다. 필자에 앞서 문화관광부의 다문화정책 발제가 있으므로, 다문화 실천과 관련된 담론적 성격의 반성적 성찰을 하는 것이 논의를 보다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오늘날의 다문화현상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이다. 다문화사회를 논한다는 것은 일단 여러 문화의 존재가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대를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들의 동거에서 공존까지 다양한 형태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의하는 다문화 논의와 관련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수용하고 일정한 동거(공존이라기보다는)를 연습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매우 초기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우리사회에는 이미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 중에서도 특정 부분, 즉 이주노동자와 국제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이주민은 한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관련 통계 수치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주민의 존재는 다문화현상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내적 요구로부터 강력히 유인된 객관적 조건의 변화이다.

1) 다문화사회로의 징후- 객관적 조건

다문화사회 징후로서 일단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 구조의 변화 속에서 독일, 베트남, 중동, 미국 등으로 이주노동자를 송출했던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이주노동 유입국으로 변모했다. 1990년대 초반 3D업종 인력난으로 촉발된 이주노동 수요는 현재 우리사회에 구조화된 상태이며, 국제결혼여성의 증가야 말로 농촌사회는 물론 미래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징후를 보다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표 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비율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체류외국인	49,507	269,641	491,324	747,467	1,155,654
인 구	44,553천명	44,553천명	45,985천명	48,294천명	48,747천명
인구대비(%)	0.11	0.60	1.07	1.55	2.37

※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통계(2009.6.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다문화사회의 징후의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광범위한 출입국현상도 들 수 있다. 1988년 내외국인의 연간 출입국자는 710만 명 수준이었으나 20년이 지난 2008년, 연간 출입국자는 3,820만 명 수준으로 5.3배가 넘는 수준이다. 특히, 내국인의 출입국은 같은 기간 278만 명에서 2,467만 명으로 8.8배 늘어 국민들의 타 문화와의 접촉면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¹⁾ 이러한 현실은 한국사회로 하여금 보다 폭 넓은 수용력을 요구하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1) <http://www.immigration.go.kr/>

2) 다문화사회의 필요- 내적 요구

이주민의 유입은 이주민 스스로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 내적 필요의 반영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적 재생산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영세 및 중소기업 부족 인력은 50만 명 내외로 예상²⁾되고 있다. 유네스코(UNESCO)는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약 2백만 명의 외국인 인력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³⁾ 이제 이주민 유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세계 최저 수준의 국내 출산율로 인해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초단기 고령화 사회 도달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으로 볼 때, 다문화에 대한 내적요구의 강도가 훨씬 강화될 것이다.

<표 2> OECD 주요선진국의 합계출산율(명)⁴⁾

나 라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한 국	1.47	1.30	1.17	1.19	1.16	1.08
일 본	1.36	1.33	1.32	1.29	1.29	1.23P
미 국	2.06	2.03	2.01	2.04	2.05	-
프랑스	1.87	1.88	1.87	1.87	1.90P	1.92P
영 국	1.64	1.63	1.64	1.71	1.77	1.79
이탈리아	1.24	1.25	1.26	1.28	1.33	1.32

* 주: 음영치는 최저점, P는 잠정치

2) 법무부, 「법무부 출입국관리행정 변화전략계획」, 2006.2

3)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의 외국인정책방향」, 이민정책세미나 자료집, 2006. 6. 8

4) 홍기원,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원, 2006, 36쪽 재인용하여 편집인용

<표 4> 인구 고령화 속도⁵⁾

나 라	도달연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14%	14%→20%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영국	1929	1976	2026	47	50
이탈리아	1927	1988	2006	61	18

또한 우리사회는 글로벌 시대 국가전략으로 국제사회에서 그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국가 발전전략으로 사회적 비차별과 기회의 다변화를 제도화함으로써 문화적 수용성과 다양성이 있는 국가적 격조를 갖추고자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한류의 확산과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긍정적 위상 등을 극대화하여 미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형성해야 한다는 담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다문화사회를 수용해야 하는 또 다른 내적 요인이다.

3. 다문화사업의 접근방식

1) 다문화 사업의 경과

강력한 내외적 조건에 의해 한국은 다문화사회로의 돌입을 선언하였다. 2005년 이후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문화 분야에서도 다문화

5) 위의 책, 37쪽 편집인용

교육과 체험, 축제 등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초기 다문화사업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이론과 실천 사이의 경험 미숙 그리고 관점의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다문화정책이 시행되는 시점까지만 해도 이주민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한 집단이 주로 이주민지원단체들이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생존의 문제로부터 다문화 담론을 형성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다문화 담론 형성에 있어, 극히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 문화적 접근은 적극 고려되지 않았다.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에 따라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목소리를 내기에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때문에 다문화정책이 전면적으로 수립된 2005년 시점은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다문화적 발상을 도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초기 대부분의 프로그램 기획자들은 상황과 정책의 불협화, 현실적 필요와 정책적 요구의 상이함에 매우 큰 혼란을 겪었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접근하던 일부 단체의 사례가 이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한 경험이 토대가 되어 현재는 곳곳에서 다문화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며,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단체 혹은 기획자들이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 프로그램은 초보적인 단계이다. 특히 문화현장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다문화 프로그램에 있어 이주민을 대상화한다든지, 한국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한다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주민들에게 퍼주기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초보적인 혼란에 불과하다. 부처 간 중복지원으로 이주민이 파트타임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 하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 단속에 걸려 출국조치된 이주민들이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결혼이민자들의 생존 문제 앞에서 자기 주머니 돈을 쥐어주는 기획자도 있었다. 몇 년간 이주민과 함께 문화사업을 진행한 어느 기획자(그녀는 누가 뭐래도 전문가로 통하는데)는 최근에 필자에게 마음 속 분노를 표현하며 다문화사업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2) 다문화사업 접근의 문제

정책적 이상향과 달리,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에는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우선, 우리사회의 다문화적 인식과 논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많은 차이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애써 하나의 동일자로 인식하는 것. 내국인을 이주민과 분리하여 인식함으로써 다문화 사업 대상을 이주민으로만 국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다문화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제도적으로 결혼 이주민은 동화의 대상이며 이주노동자는 궁극적으로 분리의 대상이다. 소통의 장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

둘째, 자발적인 이주민 활동의 부재이다. 법과 제도적 여건과 생활환경으로 인해 이주민 스스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하지 못하는 문제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전략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셋째, 이주민을 도울 시민사회활동의 열악함과 함께 다문화적 문제의식 정도 역시 중요하다. 2006년 한 조사를 보면 전국 145개 이주민지원단체 대부분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이들 중 86%는 선교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이주민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최근 다문화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이주민지원단체가 다양한 지원사업의 집행자로 역할하는 것은 다문화 담론의 공백을 가져오는 경향마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넷째, 정책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주민정책은 온랭정책이 수 없이 교차하며, 불신을 가중시켜왔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의 내적 요구에 맞게 강경함과 유연성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대개 어느 나라의 다문화정책도 그러한 부분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의 첫째, 둘째, 셋째 상황과 맞물리게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정책은 보편적인 철학과 장기적인 전망이 부재한 채 단기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4. 현대 패러다임 속에서의 다문화적 이해

오늘날 우리사회의 다문화적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며, 다문화정책 역시 정책적 트렌드가 아니다. 이미 우리사회보다 선행된 사회변화 과정을 겪은 서유럽은 1960년대 이미 사회 내 공존해야 할 다른 문화의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이민국으로 구성된 국가들 중 캐나다와 호주는 1970년대 그들의 기존정책을 포기하고 다문화주의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비록 그들간에 온도차이가 있지만 다문화사회를 사회발전 단계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1) 다문화에 대한 다른 나라의 선행사례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의미하는데 이는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이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체성은 스스로 규정하는 것과 함께 찰스 테일러의 통찰처럼 타인으로부터의 인정(認定)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며, 정체성이 인정되는 모양은 다분히 투쟁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다문화를 표방하던 다문화적 정책이 발달된 나라도 우리보다 선행된 사회발전을 이룬 나라들은 격렬한 투쟁의 과정이 있었으며, 대개 이는 유혈 사태를 동반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의 다문화적 인식전환은 인권의 문제나 반전, 평화 등의 이슈와 함께 이주민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 혹은 국제적 분쟁과 함께 제기되었다. 근대적인 가치와 일대 전쟁을 겪은 유럽은 68혁명이 휩쓸었으며, 미국은 반전, 여성, 흑인운동의 여진 속에 기존 용광로정책(melting pot)이 완화되었고, 캐나다는 퀘벡주 분리운동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상대적으로 방임주의적인 정책을 펴던 영국은 런던 시내 한가운데에서 유혈 사태를 맞으면서 다문화에 보다 적극성을 띄기도 하였다. 그만큼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 즉 기존 가치체계로부터 새로운 가치체계로의 전환과 관련이 있다. 때문에 기존 사회질서는 이에 대한 통제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구 사상가들은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변화를 사유하는 철학자들은 탈근대주의, 해체주의, 탈식민주의적인 새로운 사유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2) 우리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한계와 문화예술의 의미

반면, 우리사회의 다문화주의는 사회 전반의 변화, 즉 기존의 근대적 가치에 대한 성찰 없이 이주민의 증가 등 다문화적 현상만을 중심에 두고 다문화적 인식을 확대하게 된다. 이는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를 다인종사회나 다민족사회 등과 함께 유사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약자가 가지는 하위문화나 엄연한 단일민족 구성원인 새터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굳이 언급한다면 '단문화'에 속하는 것이다.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반하는 여성문화도 여지없이 무시되고 있는데, 이는 문화적 단절 혹은 문화적 폭력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발상으로는 다문화적 변화를 수용하기가 어렵다.

문화예술적 접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주민을 대상 예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다문화사회의 문화예술의 역할이라면 문화예술은 매우 협소한 소비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물론 문화예술이 가지는 통합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화예술이 갖는 본연의 역할 - 물론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 이나 가치는 편협하게 활용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마셜 맥루헌은 사회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예술가들이며, 예술가는 그들의 언어로 이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사실 피카소는 이미 1900년대 초반에 하나의 그림 속에 다양한 시각을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예술과 다른 방식의 예술을 열었다. 비슷한 시기 마르셀 뒤상은 변기를

뒤집어 갤러리에 전시함으로써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예술은 사회의 발전을 느끼고 표현하면서 다른 방식의 삶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다는 20세기 말미에 인권과 공존, 평화와 행복에 있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결'의 중요성이 제기되었고, 전 세계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이라는 지혜를 도출했다. 2001년 유네스코는 만국 문화 다양성 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다문화 프로그램은, 현대 행정의 정책적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럴 때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획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자체가 '수용과 소통'이라는 현대적 가치에 접근될 수 있다.

필자가 발제에 앞서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 보자. 현상을 통해 제기된 다문화 논의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매우 광범위하고 전면적으로 우리사회에 자리잡게 됐다.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다문화의 문제를 하나의 동일한 문화와 이주민의 문화로 양분하는 발상은 우리 사회의 내적 모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는 이주민에 대한 관리, 통제, 동화의 과정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매우 근대적인 발상이며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다. 우리보다 앞선 서구의 경우에도 다문화 문제는 결코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사회 내부의 근대성에 대한 성찰과 함께 광범위하게 사고되고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다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문화적 가치를 기념하는 3월 21일 호주에서 열리는 HAMONY DAY의 기본이념이 헌신(commitment), 선한 의지(goodwill), 다양성(diversity) 그리고, 공동체(community)이다. 다문화 자체가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할 때, 사회가 구성해야 할 윤리개념이 본질적인 것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다문화의 문제를 단지 이주민을 수용하는 문제로 국한하지 않을 때 문화예술은 자유롭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5. 글을 마치며- 다문화사회 문화예술의 관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다문화사회 인식과 실천이 서서히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 집행이 그 속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여지없이 사회적 충돌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인종적, 문화적 약자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가 300만 명이 넘는 우리사회의 현실이나 우리 근현대사를 지탱해온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고민 없이 급격한 다문화사회 진입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사회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새터민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 프로그램에 임하는 몇 가지 관점이 요구된다.

1) 탈근대적 관점에 서야 한다.

다문화주의는 근대적 가치- 원칙, 규칙, 계몽, 선도 등과 결별한 다른 세계의 가치이다. 다문화주의와 근대적 가치는 병존하기 어려우며 이것이 병존하는 것이 동화주의적 태도이다.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대체로 우리사회의 가치를 성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2) 다문화주의적 관점에 서야 한다.

이주민은 우리사회의 소수자이다. 또한 우리사회에는 많은 사회경제적 소수자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주민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수행하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관점은 소수문화에 대한 이해가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주민이 가지고 온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들과 이웃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동시에 바라볼 때 갈등 요소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견지하여야 한다.

조금 더 나가서 공동체적 관점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일회성 행사나 축제뿐만 아니라, 생활공간 및 거주 지역에서 일상적인 마주보기, 관계맺기, 소통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4) 내국인 다문화인식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사회는 이주민이든 내국인이든 모두 다 문화적 무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이를 위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주민 다문화프로그램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프로그램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다문화교육에 애를 쓰는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에선 다문화교육을 문화 해독력 강화 교육, 평화공존 교육, 건강한 시민 교육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5) 다문화 프로그램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질곡인 분단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새터민의 남한사회 부적응과 남한인의 새터민에 대한 수용 태도 등은 문화적 이질감을 넘어 차별과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남아계 이주민과 달리 혈연, 언어, 역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는데 있어 다문화주의적 통합의 원리가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감수성의 성장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문화적 상상력과 정서적 공감은 향후 우리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실제로 그 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

다문화사회는, 마치 최인훈의 소설 광장처럼, 모두가 만나는 광장(다문화적 시민사회)과 밀실(문화적 정체성)이 공존하는 사회와 비슷한 모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광장으로 초대하는 다양한 예술적 실험과 문화 감수성은 광장

의 크기와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광장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은 다문화사회의 수용 능력과 다문화 시민의식의 전면화를 의미한다. 바로 광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문화예술의 시대적 과업이다.⁶⁾

참고문헌

- 맥크루헌, 마셜,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 Smith, Philip,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 Blackwell Publishing, 2001
- Martinielo, M., 윤진(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2002
- 홍기원외,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 문화관광연구원, 2006,
- 최혜자외, 『이주노동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7
- 김혜순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2007
- 김세훈외,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문화관광부, 2005
- 김남국, 「심의 다문화주의 :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생존」 국제정치논총 제 45집 4호, 2005
- 김남국, 「유럽에서 다문화의 도전과 대응」 국회도서관보325
- 최혜자, 「다문화사회 속에서 새로운 문화 만들기」, 안산문화정책세미나, 2007
- 최혜자, 「예술 경영의 새로운 환경 - 다문화사회」, 예술경영학회세미나, 2008
- 조정남, 「현대국가와 다문화주의」, 민족연구, 6권, 2004
- 정상준,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미국학학회지 24호, 2001

6) 최혜자, 「예술 경영의 새로운 환경 - 다문화사회」, 예술경영학회세미나, 2008 재인용

김시홍, 「이탈리아 이민과 다문화주의」,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1호, 2005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의 외국인 정책방향」,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민정책
세미나, 2006

교육인적자원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다문화사회와 국제이해교육」, 2006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2006

‘유럽의 무슬림 프랑스 폭동 1년’, 『한겨레신문』, 2006.10.25

‘호주 ‘다문화주의 정책’ 들여다보니...’, 『국정브리핑』, 2006. 5. 26

‘이주노동자도 다 같은 노동자(독일)’, 『서울신문』, 2005.08.09

‘유럽의 이민자 실태 ‘통합유럽’ 그늘아래 40여년 차별’, 『한겨레신문』,
2005.11.08

‘사회적 불만’ 터진 프랑스’, 『한겨레신문』, 2005.11.16

‘식탁위의 다문화주의- 한건수’, 『경향신문』, 2005.12.15

‘프랑스 ‘무슬림폭동’ 전국으로 확산...‘다문화주의 유럽’의 종말?’,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5.11.6

‘테마 기행/수도권 외국인마을’, 『동아일보』, 2006.07.07

‘코리안 드림 애환 섞인 그들만의 해방구’, 『한겨레신문』, 2003.05.14

‘호주, 다문화주의 폐기’ 『연합뉴스』, 2007.1.24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호주 다문화국 <http://www.immi.gov.au/>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제6차 경기문화포럼
다문화 사회의
문화예술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Tel. 031_231_8513 Fax. 031_231_8509